

## 국민의 경제적 삶 현황 및 분석

### ■ 경제상황이 '소비'와 '생활'에 미친 영향

- \_ 최근 몇 달간 '상품 구매 미룬 경험, 많았다', 51%
- \_ 삶 평가 지수 '고통스럽다' 유형, 부정적 경험 특히 많아
- \_ 20대보다 30대,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경험 많아
- \_ 40대, 30대처럼 부정적 경험 많고, 5060세대 적어
- \_ 보수층 부정적 경험 많고, 진보층 적어

### ■ 경제상황이 '생각'에 미친 영향

- \_ 최근 몇 달간 '로또 당첨', '부수입' 생각 매우 많아
- \_ '고통스럽다' 유형, 부정적 생각 매우 많아
- \_ 여자 20대와 남녀 30대, 부정적 생각 비중 매우 높아
- \_ 40대 부정적 생각 많고, 5060세대 적어
- \_ 보수·중도층 국민전체 대비 부정적 생각 많아

### ■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

- \_ 최근 몇 달간 '인간관계', '좋아졌다' 응답 많아
- \_ '고통스럽다' 유형, 인간관계 부정 응답 상대적으로 많아
- \_ 2030세대, 나빠진 인간관계 항목 달라
- \_ 4060세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 높아
- \_ 보수층,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나빠졌다' 높아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2월 3일(금) ~ 2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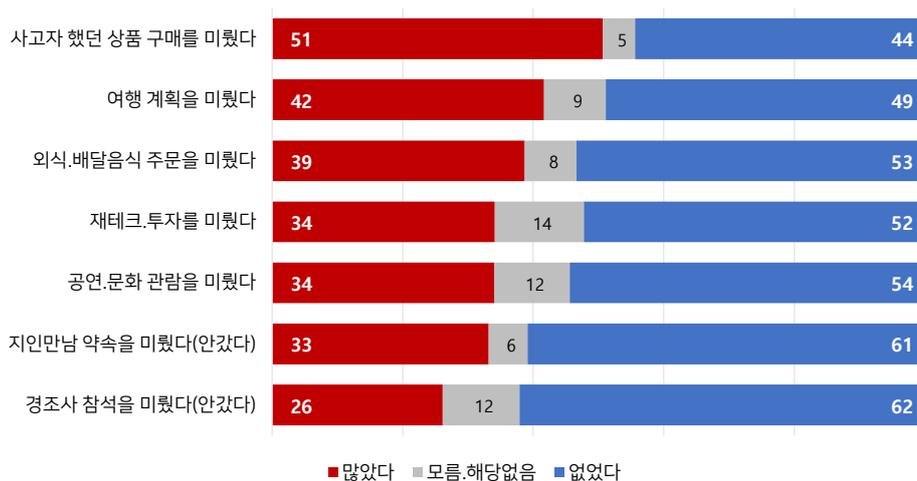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경제상황이 '소비'와 '생활'에 미친 영향

### □ 최근 몇 달간 '상품 구매 미룬 경험, 많았다', 51%

- 최근 몇 달간 우리 국민의 '경제적 삶'을 조사한 결과, '사고자 했던 상품 구매를 미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몇 달을 돌아볼 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다음으로 '여행 계획을 미뤘다'(42%)와 '외식 또는 배달음식 주문을 미뤘다'(39%)는 응답이 높았음
- 뒤를 이어 '재테크.투자를 미뤘다'(34%), '공연.문화 관람을 미뤘다'(34%), '지인만남 약속을 미뤘다(안갔다)'(33%), '경조사 참석을 미뤘다(안갔다)'(26%) 순으로 응답함

최근 몇달간 '경제적 삶' 관련 경험 : 국민전체  
(자료:케이마켓,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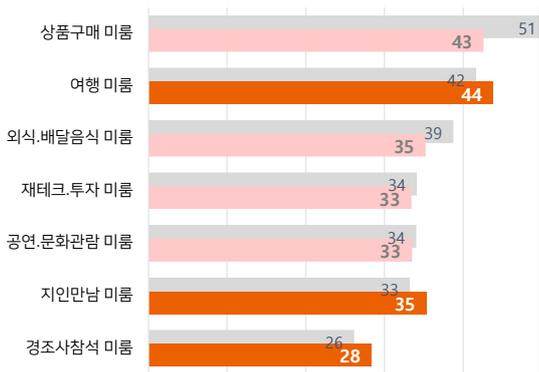
#### Kstat Point

- ☑ 2022년은 이른바 '3고 시대'(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이 조성되면서 국가 전체는 물론 국민들의 경제적 삶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삶' 관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최근 몇 달간 '상품구매를 미뤘다'는 응답이 51%로 높게 나타남
  - : 이는 '고물가' 때문으로 보이며, '고물가'가 국민들의 경제적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 '여행'과 '외식.배달음식 주문'을 미룬 경험도 높았는데, '고물가'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 '고물가는 곧 '실질소득 감소'를 뜻하기에, 국민들이 줄어든 소득에 대응해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지인만남'과 '경조사 참석'을 미룬 경험도 각각 33%, 26%로 나타났는데, 실질소득 감소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삶 평가 지수 '고통스럽다' 유형, 부정적 경험 특히 많아

- '삶 평가 지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통스럽다'는 유형이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삶 평가지수'는 현재와 약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유형화한 결과임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케이스탯은 2022년 9월부터 매달 조사를 진행중이며, 2023년 2월 현재 유형별 비중은 '번창중' 11%, '고군분투중' 68%, '고통스러움' 20%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2023년 2월 사회지표』 보고서 참고)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열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검은색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고군분투중' 유형은 모든 요인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경험이 적었음
  - '번창중' 유형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경험이 적은 가운데, '여행' 등 일부 항목에서만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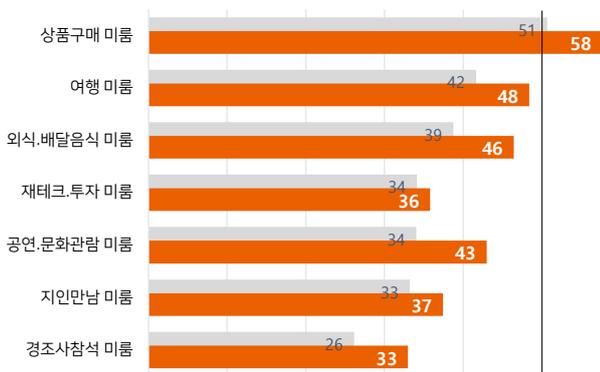
'삶 번창중',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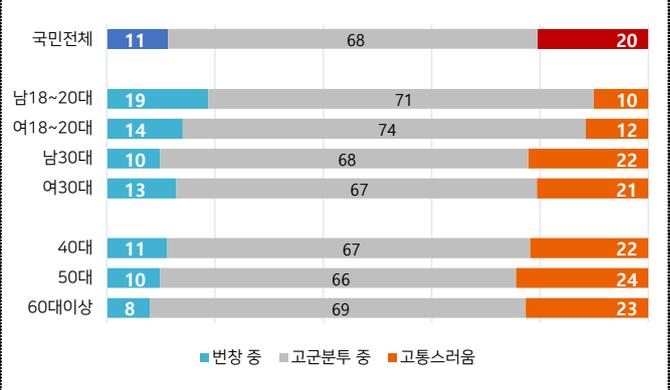
'삶 고군분투중',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삶 고통스러움',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2023년 2월 '삶 평가 지수'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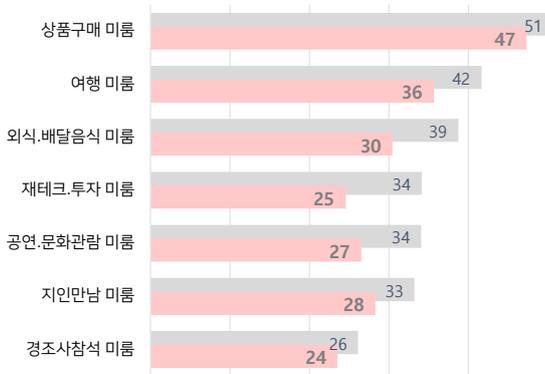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이번 케이스탯 조사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국민의 경제적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삶 평가 지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최근 경제상황이 '고통스러움' 유형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고군분투중' 유형과 '번창중' 유형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낮음
  - : '상품구매 미룸'만 놓고 보면 '고군분투중' 유형도 50%가 경험했고, '번창중' 유형도 43%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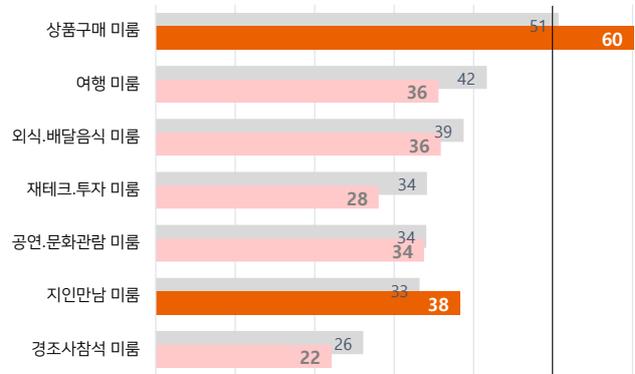
## □ 20대보다 30대,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경험 많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보다 30대의 부정적 경험이 많음
  - 20대는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경험 비중이 낮는데 비해 30대는 높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열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검은색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같은 세대 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경험이 많음
  - 여자 30대는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특히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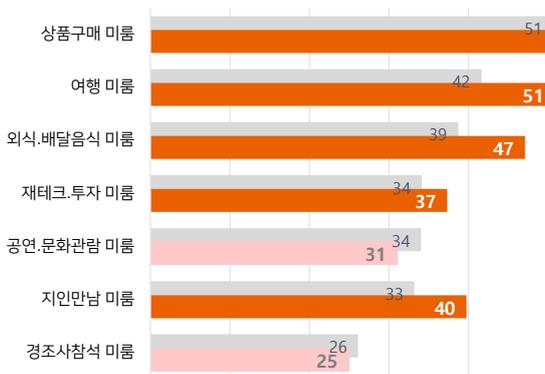
남자 18~20대,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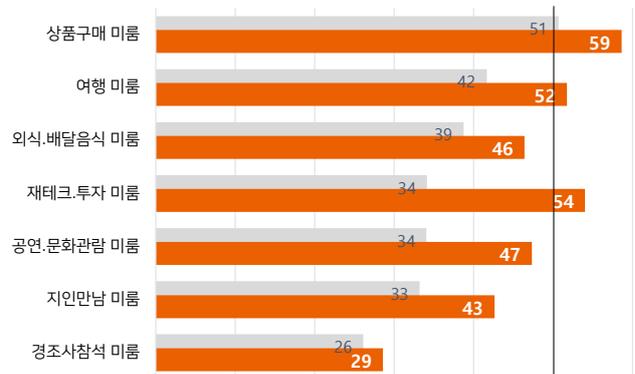
여자 18~20대,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남자 30대,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여자 30대,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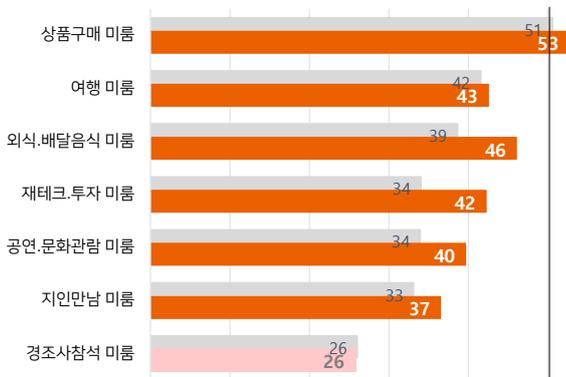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2030세대 모두 '상품구매 미룸' 경험이 많아, '고물가'에 따른 소비축소 흐름이 뚜렷한 것으로 보임  
: 남자 20대 47%, 여자 20대 60%, 남자 30대 58%, 여자 30대 59%
- ☑ 30대의 부정적 경험이 많은데, 이는 소득과 지출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던 30대가 급격히 지출을 줄인 것으로 읽힘  
: 20대는 최근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애당초 경제활동이 저조했었기에, 경제상황이 악화됐다고 특별히 부정적 경험이 많아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 주목되는 지점은 '지인만남 미룸'으로, 2030세대들이 지인과의 만남을 미루거나 가지 않은 경험이 많다는 점임  
: 그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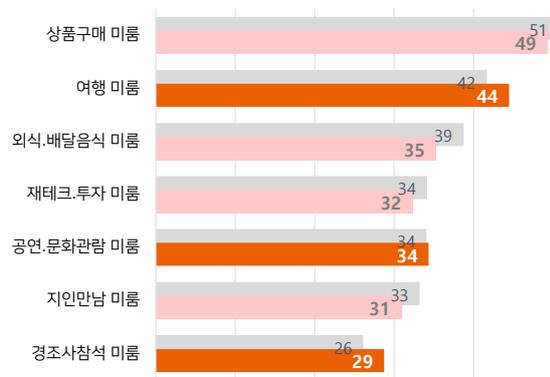
## □ 40대, 30대처럼 부정적 경험 많고, 5060세대 적어

- 40대는 30대처럼 부정적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열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검은색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이에 비해 5060세대는 국민 전체와 비교해 부정적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0대 이상은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낮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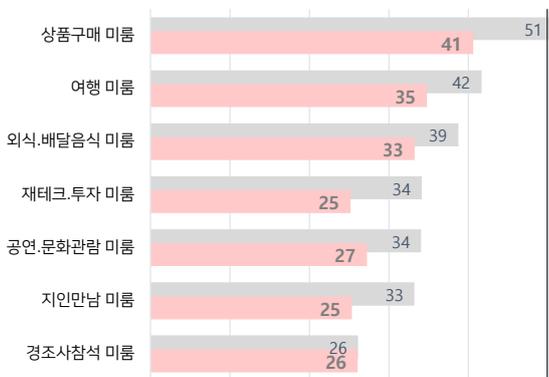
40대,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50대,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60대이상,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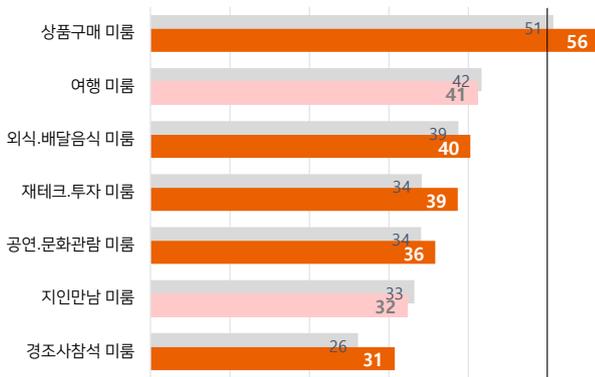
### Kstat Point

- ☑ 4060세대 역시 전반적으로 '상품구매 미룸' 경험이 많아, '고물가'가 모든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40대 53%, 50대 49%, 60대이상 41%
- ☑ 40대는 30대처럼 부정적 경험이 특히 많으며, 이 역시 소득·지출 등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의 특징 때문으로 보임
  - : 최근 몇 달간 3040세대는 모든 요인에 걸쳐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5060세대는 상대적으로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경험이 낮으며, 특히 60대 이상이 낮음
  - : 60대 이상의 낮은 부정적 경험은 앞서 20대처럼 애당초 경제활동이 저조했었기에, 경제상황이 악화됐다고 특별히 부정적 경험이 많아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50대는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세대적 특징이 반영돼, 경제상황 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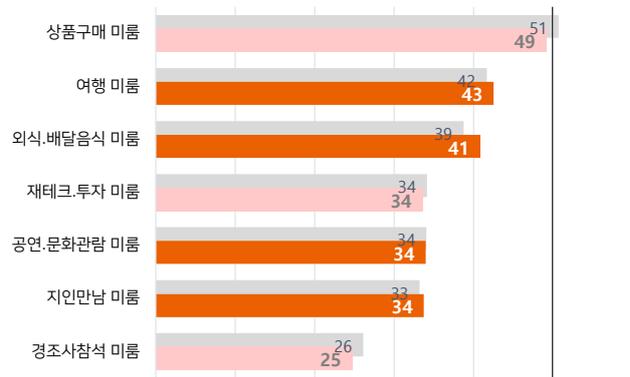
## □ 보수층 부정적 경험 많고, 진보층 적어

- 주관적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국민 전체에 비해 부정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열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검은색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이에 비해 진보층은 부정적 경험이 낮고, 중도층은 그 중간 수준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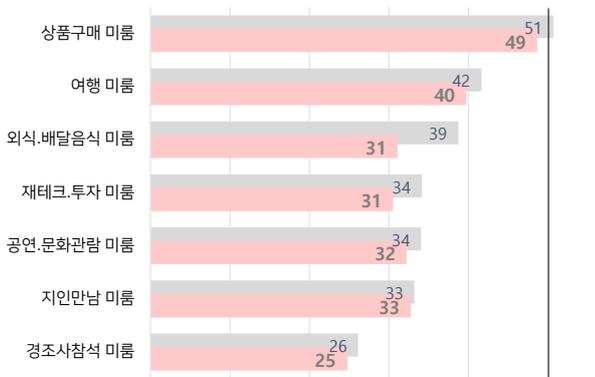
보수층,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중도층,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진보층, 최근 경제적 삶 경험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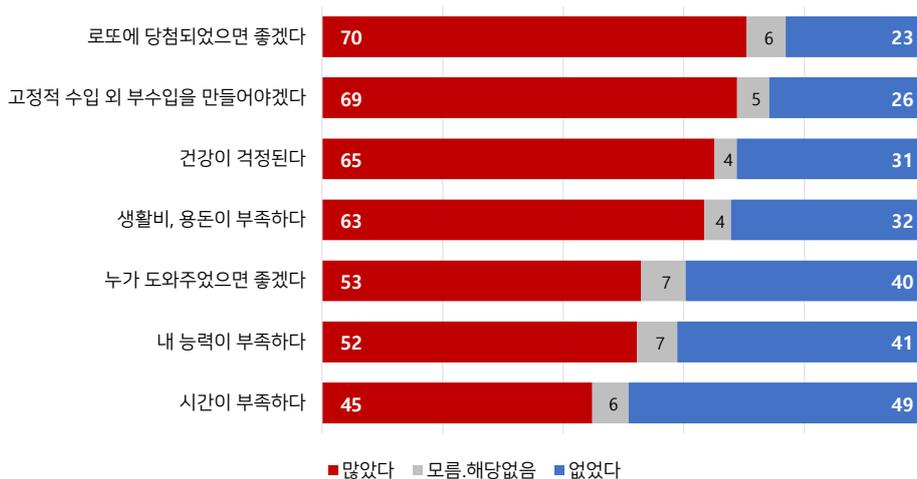
-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도 '상품구매 미룸' 경험은 모두 높게 나타나, '고물가'가 경제적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뚜렷함 : 보수층 56%, 중도층 49%, 진보층 49%
- ☑️ 보수층은 거의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경험이 많아, 최근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이며, 중도층은 그 중간 수준임
- ☑️ 흥미로운 점은 그간 '경제적 수입(또는 살림살이) 전망' 관련 각종 조사결과와 이번 '경제적 삶 관련 경험'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 '경제적 수입' 전망과 관련해 보수정부 집권 시기에는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긍정 전망, 진보정부 집권 시기에는 반대로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긍정 전망' 경향이 뚜렷했음 (갤럽 '향후 1년 살림살이 전망' 등 참고) : 이렇듯 '경제적 수입 전망'은 이념에 따라 선형적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이번 '경제적 삶 관련 경험' 조사는 객관적인 응답으로 판단됨

## 경제상황이 '생각'에 미친 영향

### □ 최근 몇 달간 '로또 당첨', '부수입' 생각 매우 많아

- 우리 국민 중 70%는 최근 몇 달간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69%는 '고정적 수입 외 부수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몇 달을 돌아볼 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 다음으로 '건강이 걱정된다'(65%), '생활비, 용돈이 부족하다'(63%)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 뒤를 이어 '누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53%), '내 능력이 부족하다'(52%), '시간이 부족하다'(45%) 순으로 응답함

최근 몇달간 들었던 '생각'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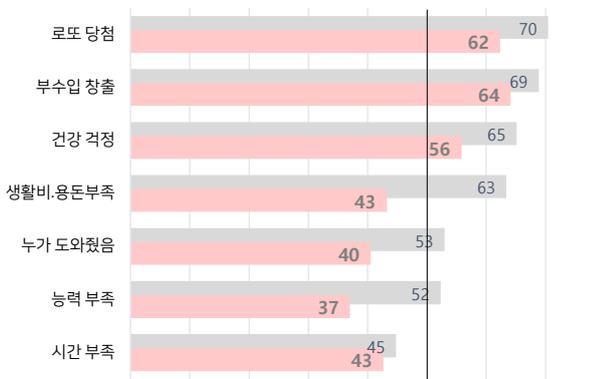
#### Kstat Point

- ☑ 2022년부터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국민의 '생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로또 당첨', '부수입 창출', '생활비.용돈 부족' 등 경제와 관련된 부정적 생각을 한 국민 비중이 60%를 넘고 있음
  - : 앞서 '경제적 삶 경험'과 비교해 '생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높음
- ☑ 그 외 '건강 걱정', '능력 부족' 생각을 많이 한 국민 비중이 50% 이상이고, '누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국민도 50%를 넘음
  - : '능력 부족'과 '누가 도와줬음'의 경우 경제적 수입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생각으로 보이고, '건강 걱정'도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투영된 생각으로 판단됨
- ☑ 또한 '시간 부족'도 4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적 상황변화 속에 국민들의 부정적 생각이 많아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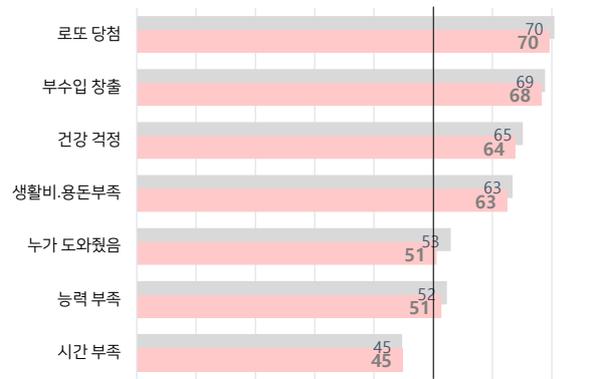
## □ '고통스럽다' 유형, 부정적 생각 매우 많아

- '삶 평가 지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통스럽다'는 유형이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생각이 많았음
  - 아래 그림에서 옅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검은색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번창중' 유형은 모든 요인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생각이 적었음
  - '고군분투중' 유형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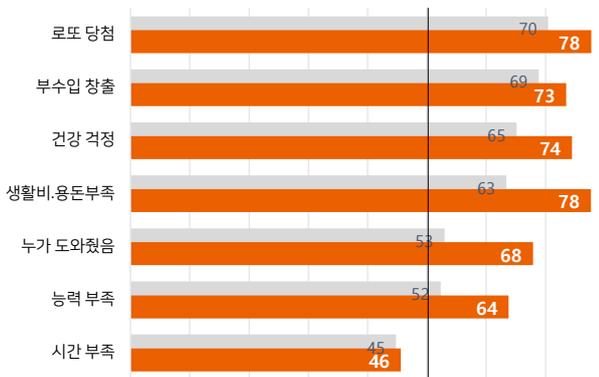
'삶 번창중',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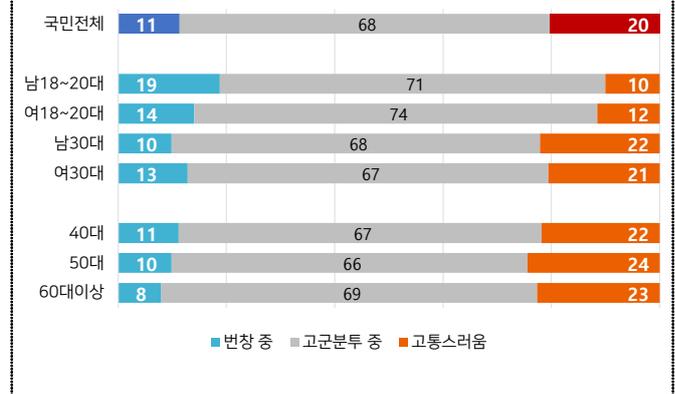
'삶 고군분투중',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삶 고통스러움',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2023년 2월 '삶 평가 지수':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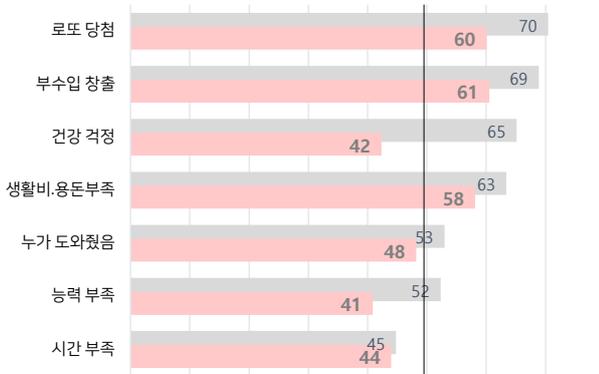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삶 평가 지수' 유형 중 '고통스러움' 유형의 부정적 생각 경험이 매우 높음
  - : '시간 부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60%이상의 높은 비중을 기록할 정도로, 최근의 경제상황이 이들 '고통스러움' 유형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음
  - : 상대적으로 '번창 중' 유형은 국민 전체보다 여유롭고, '고군분투중'은 그 중간에 있음
  - : 경제상황 변화가 국민들 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 한편, '번창 중' 유형도 요인에 따라 부정적 생각을 하는 비중이 많아, 이들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로또 당첨', '부수입 창출', '건강 걱정' 등을 많이 했다는 비중이 50%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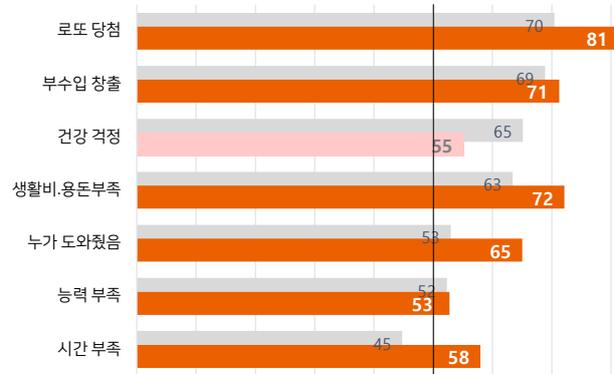
## □ 여자 20대와 남녀 30대, 부정적 생각 비중 매우 높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20대를 제외한 2030세대들의 부정적 생각 비중이 매우 높음
  - 남자20대는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생각 비중이 낮지만, 다른 2030세대들은 모두 국민 전체보다 높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열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검은색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20대보다는 30대의 부정적 생각이 많음
  - 여자 30대는 모든 요인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생각을 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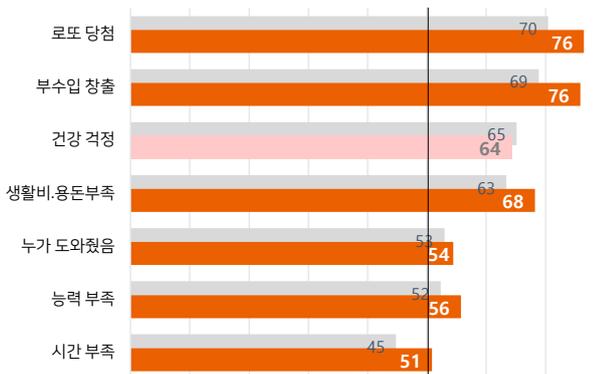
남자 18~20대,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여자 18~20대,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남자 30대,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여자 30대,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2030세대들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남자 20대의 경우 50% 미만을 기록한 '생각'이 더 많았지만, 여자 20대와 남녀 30대는 모든 요인에 걸쳐 부정적 생각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함
- ☑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즉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여자 20대와 남녀 30대 모두 50%를 넘고 있음
  - : 여자 20대 65%, 남자 30대 54%, 여자 30대 74% 등임
  - : 그만큼 2030세대 다수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40대 부정적 생각 많고, 5060세대 적어

- 40대는 30대처럼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열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검은색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이에 비해 5060세대는 국민전체와 비교해 부정적 생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는 '부수입 창출', '건강 걱정'이 국민 전체보다 높았으며, 60대이상은 '건강 걱정'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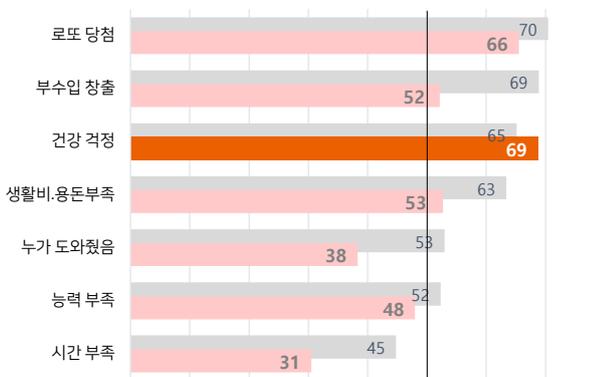
40대,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50대,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60대이상,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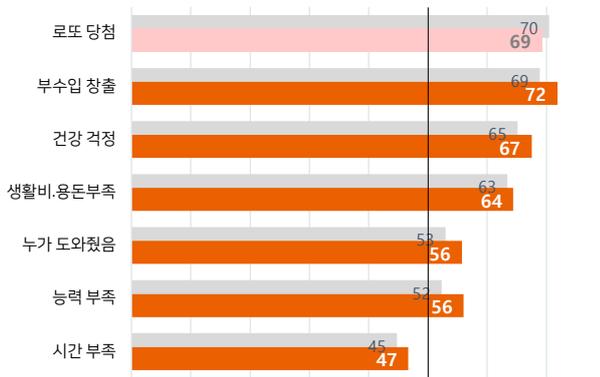
### Kstat Point

- ☑ 4060세대의 부정적 생각 비중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생각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 각 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비중을 보면, 40대는 거의 모든 요인이 50%를 넘고, 50대는 2개를 제외한 전부, 60대이상은 3개를 제외한 전부임
  - : 부정적 경험에 비례해 부정적 생각이 많아진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앞서 살펴본 부정적 경험의 차이 때문으로 보임
- ☑ 또한,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세대별로 다름
  - : 40대는 63%가 생각을 했지만 50대는 45%로 줄고, 60대이상은 38%로 더욱 줄어듦
  - :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부정적 경험 차이와 더불어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에 대한 수용도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보수·중도층 국민 전체 대비 부정적 생각 많아

- 주관적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중도층은 국민 전체에 비해 부정적 생각 비중이 높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열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검은색 세로선은 50% 기준선임
- 이에 비해 진보층은 부정적 생각 비중이 국민 전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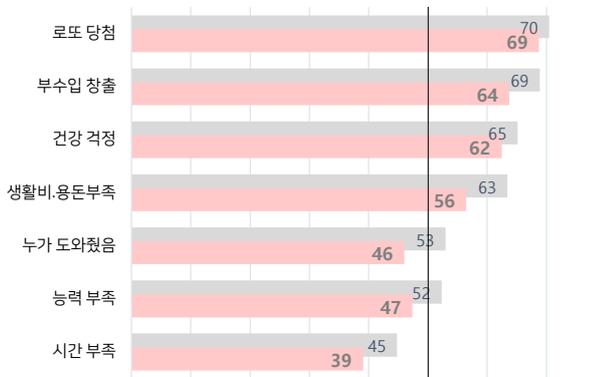
보수층,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중도층,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진보층, 최근 들었던 생각 '많았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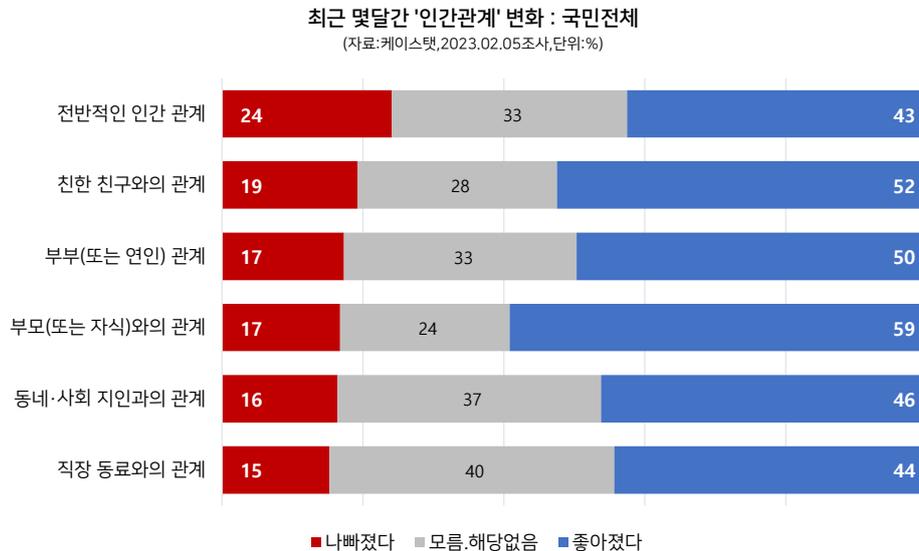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이념성향을 떠나 거의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한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함
  - : 보수층과 중도층은 '시간 부족' 외 다른 요인 모두 부정적 생각 비중이 50%를 넘고, 진보층도 상당수 요인이 50%를 넘고 있음
- ☑ 그만큼 최근 경제상황 변화가 국민 대부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

### □ 최근 몇 달간 '인간관계', '좋아졌다' 응답 많아

- 우리 국민들은 최근 몇 달간 모든 부문에 걸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함
  - “최근 몇 달을 돌아볼 때, 선생님은 다음 각각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부모(또는 자식)와의 관계’가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52%), ‘부부(또는 연인) 관계’(50%) 순이었음
- 상대적으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은 항목은 ‘전반적인 인간관계’(24%)이고, 다음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19%), ‘부부(또는 연인) 관계’(17%), ‘부모(또는 자식)와의 관계’(1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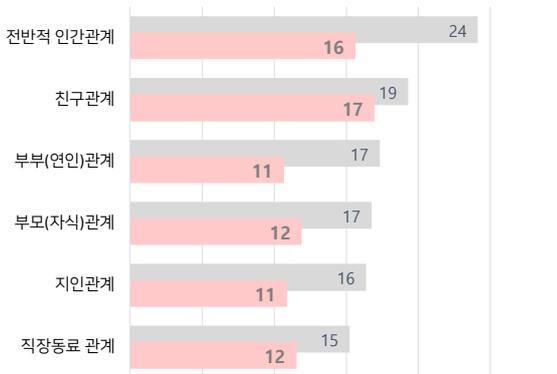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들은 이른바 ‘3고 시대’(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를 맞아 ‘부정적 경험’이 다소 증가하고, ‘부정적 생각’은 매우 많아졌지만, ‘인간관계’는 좋아졌다고 생각함
  - : 특히 ‘부모(자식)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59%로 높은 비중을 기록함
- ☑ 현 시점에서는 경제상황 변화가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보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양상임
  - : 부정적 응답이 높은 항목은 ‘전반적인 인간관계’로 24%에 머물고 있음
  - : 앞서 ‘지인만남 약속을 미뤘다(안갔다)’는 응답이 국민 전체적으로 33%를 기록했으나, 그렇다고 인간관계나 ‘나빠졌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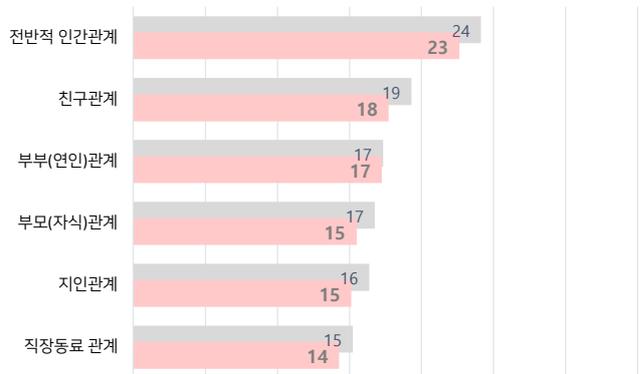
## □ '고통스럽다' 유형, 인간관계 부정 응답 상대적으로 많아

- '삶 평가 지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통스럽다'는 유형은 모든 항목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인간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함
  - 아래 그림에서 옅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 '변창중' 유형은 모든 항목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생각이 적었음
  - '고군분투중' 유형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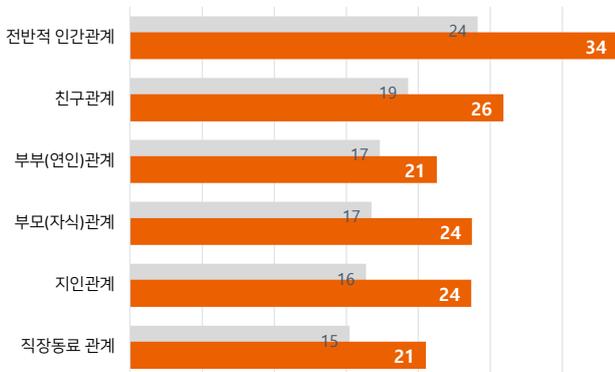
'삶 변창중',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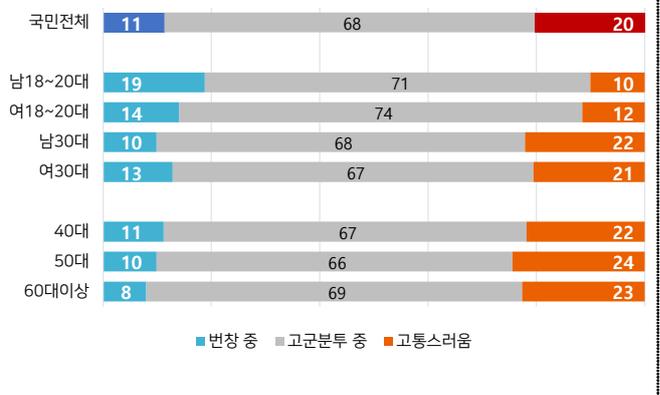
'삶 고군분투중',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삶 고통스러움',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2023년 2월 '삶 평가 지수': 국민전체,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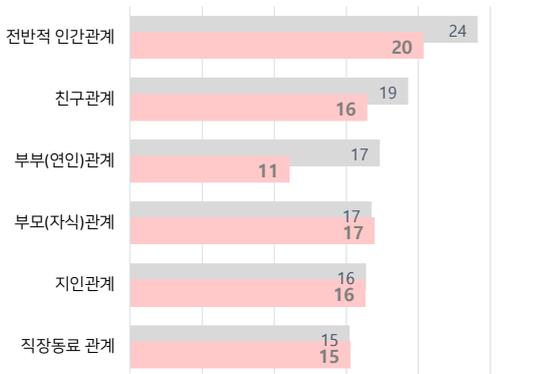
### Kstat Point

- ☑ 경제상황 변화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나빠졌다'는 응답내용에 주목하고자 함
- ☑ '삶 평가 지수' 유형 중 '고통스러움' 유형은 상대적으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고, '변창 중'은 낮음
  - : 경제상황 변화가 '고통스러움' 유형에게는 인간관계 악화로까지 이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 '변창 중' 유형의 응답과 비교할 때 이러한 '조짐'은 더욱 두드러짐
- ☑ 이러한 '조짐'이 향후 더욱 확대돼 '나빠졌다'는 응답이 우세한 흐름으로 전환될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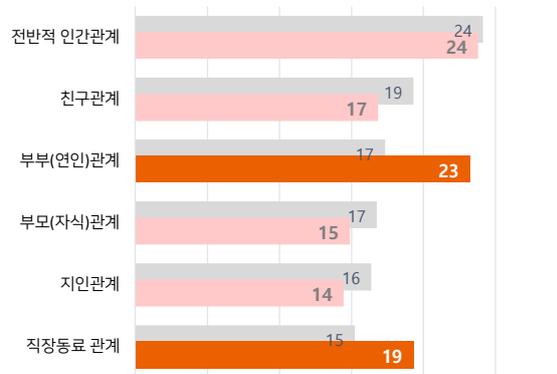
## □ 2030세대, 나빠진 인간관계 항목 달라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남자 20대는 모든 항목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 비중이 낮음
  - 아래 그림에서 옅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 여자 20대와 남녀 30대가 국민 전체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항목은 다소 다름
  - 여자 20대 : 부부(연인) 관계, 직장동료 관계
  - 남자 30대 : 부모(자식) 관계, 직장동료 관계
  - 여자 30대 : 부모(자식) 관계,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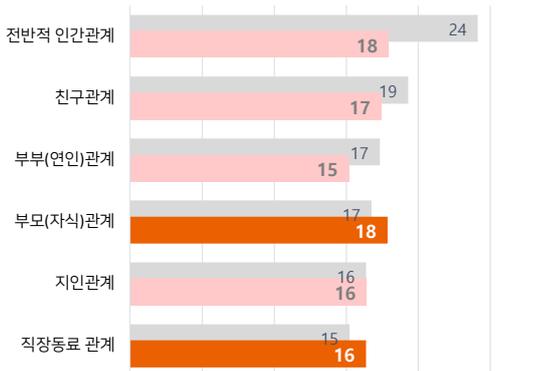
남자 18~20대,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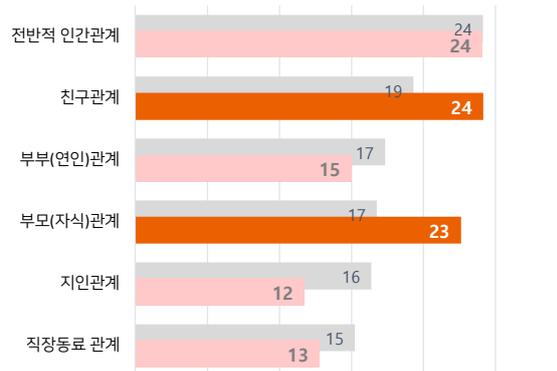
여자 18~20대,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남자 30대,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여자 30대,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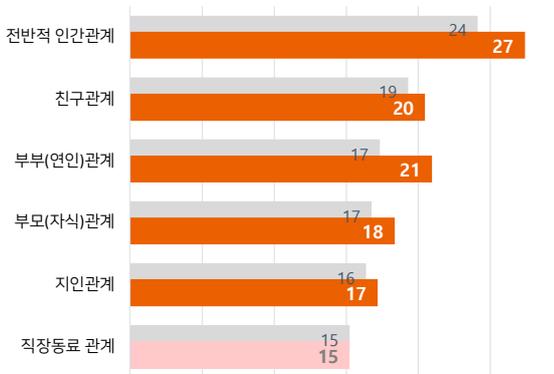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2030세대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높고, 상대적으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은 항목은 성/연령별로 다름
- ☑ '나빠졌다'는 응답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만 살펴보면, 여자 20대와 여자 30대만 해당함
  - : 여자 20대는 '부부(연인) 관계'이고, 여자 30대는 '친구관계'와 '부모(자식) 관계'임
  -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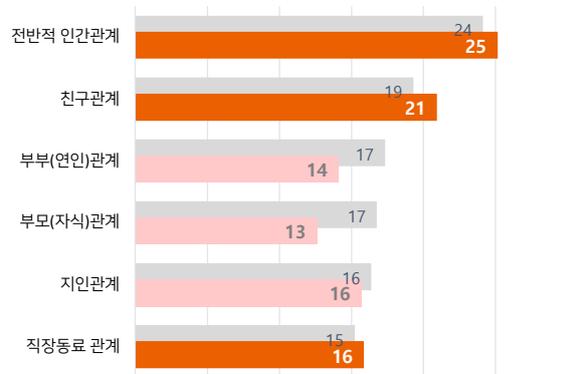
## □ 4060세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 높아

- 4060세대는 전반적으로 인간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국민 전체보다 높게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열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 40대는 국민 전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은 항목은 5개이고, 50대와 60대이상은 공히 3개임
  - 40대 : 전반적인 인간관계, 친구관계, 부부(연인) 관계, 부모(자식) 관계, 지인관계
  - 50대 : 전반적인 인간관계, 친구관계, 직장동료 관계
  - 60대이상 : 부부(연인) 관계, 부모(자식) 관계, 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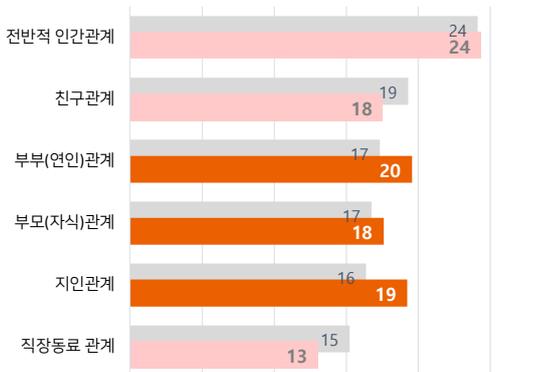
40대,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50대,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60대이상,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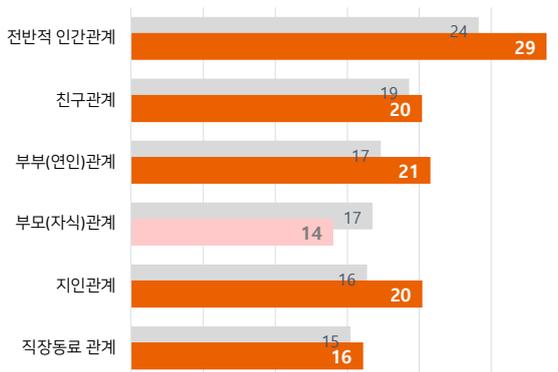
### Kstat Point

- ☑ 4060세대는 2030세대에 비해 인간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 특히 40대는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비롯해 대부분의 항목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음
  - : 50대와 60대이상도 항목은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2030세대보다 부정적임
- ☑ 2030세대와 다른 4060세대의 이러한 응답이 경제상황 변화 때문인지는 불확실함
  - : 경제상황 변화 때문이 아닌 다른 정치·사회적 요인이 미친 영향일 수도 있음
  - :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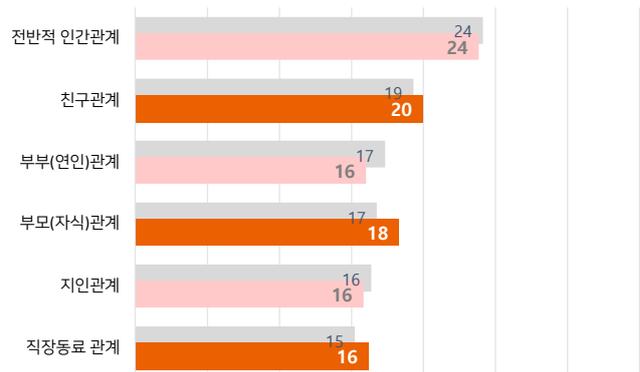
## □ 보수층,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나빠졌다' 높아

- 주관적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국민전체에 비해 인간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음
  - 아래 그림에서 옅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붉은색, 높으면 짙은 붉은색으로 표기함
- 이에 비해 진보층은 국민 전체보다 낮고, 중도층은 그 중간적 위치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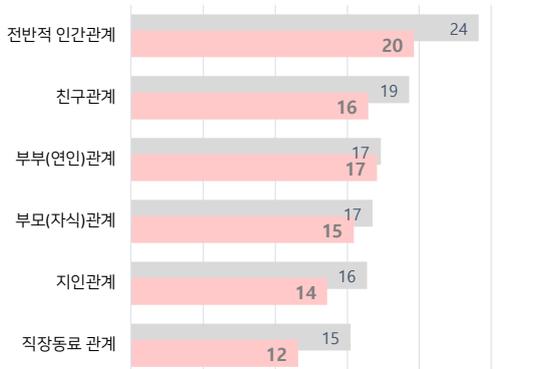
보수층,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중도층,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진보층, 최근 인간관계 '나빠졌다' 응답 비중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 Kstat Point

- ☑ 이념성향을 떠나 모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층은 '나빠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진보층은 낮은 특징을 보임
  - : 특히 보수층의 '전반적 인간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 비중이 29%로 비교적 높음
-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경제적 삶의 '부정적 경험', '부정적 생각'에 이어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보수층은 일관되게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고, 진보층은 낮음
  - : 경제적 상황변화에 대한 반응과 인간관계만 놓고 볼 때 보수층이 더 민감하고 비판적인 모습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70,71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0호와 71호는

각각 3월 9일(목요일), 3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3월 사회지표는 3월 1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